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본 북한의 변화

김진국 / 중앙일보 정치부 차장

평양은 변하고 있다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역사적 남북 정상 상봉이 이뤄졌다. 처음으로 하늘 길을 열어 평양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은 영접 나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6월 14일. 목란관.

남북 정상은 공동선언에 완전 합의했음을 선언하며, 손을 맞잡아 올렸다. 김정일 위원장은 남측 공식 수행원들에게 일일이 포도주를 부어주며 '원샷'을 요구했다. 그리고는 다른 테이블에 있던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등 북한 군 수뇌부 7 명을 향해 "국방위원들, 김대중 대통령께 인사드리라우"라고 외쳤다. 멍칫해 주저하는 국방위원들에게 김 위원장은 다시 독촉했다. 그러자 평북 차림으로 있던 이들은 김 대통령 앞에 도열해 술을 받았다.

6월 15일 순안공항.

남북 정상은 서로 껴안고 재회를 약속했다.

사흘간의 평양 일정은 충격의 연속이었

다. 어느 것 한 가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였다. 이같은 충격은 평양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상징적 장면들이 주는 강력한 힘에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걱정될 정도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상 김 위원장의 생각은 법 이상의 의미가 있다. 아무리 선전을 위한 제스처라 할지라도 변화를 향한 발걸음이 떼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

가장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것은 북측 사람들의 태도다. 기자는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재하러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때와 이번을 비교하면 전혀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들을 안내한 안내원(이들은 대부분 보위부 소속이다)이나 호텔 종업원, 평양 시민들의 반응, 어디서나 변화는 느껴졌다.

1992년 평양에서 만난 사람들은 남측 인사에 대해 적개심이 가득했다. 인민대학습당에서 만난 한 학생은 주한 미군 문제를 거론하며 공격적 질문을 퍼부었다. 회담장인 인민문화궁전 앞에서 만난 시민도 안내원이 뜬 어말릴 정도로 기세를 올렸었다.

안내원들은 매일 협상에 필요한 내용을 물어 상부에 보고하는 감시자이자 정보수집원이었다. 조금도 서로 마음을 열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회담 성공을 바라는 동료의 모습으로 변했다. 자기 주장을 강요하기보다 남쪽 수행원이 최대한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배려했다.

북의 실상에 대해서도 솔직했다. 전력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해 큰 일이라는 말도 했다. 달라지지 않았다면 ‘굶어도 구걸하지 않고 우리 식으로 한다’는 자존심이었다. 전력 부족은 ‘핵 소동’, 식량 부족은 ‘잇단 수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남측 사람을 보는 북한 주민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13일 공항에서 숙소로 들어가는 차에서 안내원은 창 밖에 보이는 김일성 경기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수령님(김일성)께서 평양에서 처음으로 연설하신 곳입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으로,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조국 건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밤 평양 TV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 운동을 그린 드라마를 방영했다. 공산주의 이념에 철저한 한 부하가 ‘애국적 지주’를 탄압한 데 대해 김 주석이 사과하고, “민족이 있고 이념도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그날의 메시지였다.

기자를 안내한 라운석氏は “민족이 없으면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라며 드라마 내용에 동조했다. 다른 안내원들의 발언에서도 과거의 대결 의식보다는 공존에 무게가 실려 있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따뜻해졌다. 13일 연도에 나온 시민들은 열렬히 환영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열광이었다. 그들의 구호는 “만세, 만세”, “김정일, 결사옹위”였다. 김 대통령에 대한 환영으로 비쳤지만 첫날은 사실 김일성 주석 사망 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에 대한 환호였다.

환영 행사가 끝나고 기자단을 실은 미니 버스는 금수산의사당(주석궁) 앞에서 돌러고려호텔로 향했다. 환호하던 꽃술을 든 주민들은 각자 발길을 재촉할 뿐 우리 차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러나 14일 아침 로동신문 1면에 공항의 악수 장면이 크게 실린 뒤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손을 흔들기 시작했다. 합의서 서명이 이뤄진 15일에는 주민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웠다.

김대중 대통령이 탄 리무진이 지나갈 때는 연도에서 박수가 터졌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까지 길을 멈췄다. 한 안내원은 “통일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1992년 판문점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판문점으로 가는 버스에서, 기차에서 주민들

을 마주치기도 했지만 그들은 애써 외면하듯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평양 시내에서 마주친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우리가 공산주의자의 머리에는 빨이 달린 양 교육을 받았듯이 그들에게도 우리는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다는 기억이 남아 있다. 그런 기억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1998년 9월 경남대학교 총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때는 주민들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훨씬 자유롭고 유연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북의 선전도구인 로동신문이 ‘대통령, 대통령 내외분’이라고 쓰는 것은 대단한 변화라고 했다. 평양의 변화가 기자 개인의 느낌은 아닌 듯했다. 북한을 처음 방문한 기자들조차 크게 낯설어 하지 않았다.

최고의 예우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

이러한 변화는 김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다. 평양 중앙 TV와 로동신문이 연일 김 대통령 사진과 기사를 크게 실는 것이 영향을 준 듯했다. 북한 주민들은 아침 작업을 시작하기 전 로동신문을 들고 교양을 하기 때문이다.

한 안내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에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 아

니냐. 북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다른 안내원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북한 협력·교류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김정일 위원장의 예우에서 비롯되는 것이 틀림없다. 김 위원장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남쪽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김 위원장은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다”고 했다. 연장자인 김 대통령을 예우한 명분이다. 회담장을 김 대통령이 묵고 있던 백화원 영빈관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어쩌면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과 사진을 찍으면서 정 명예회장이 가운데 서게 한 것과 같은 행동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은 어른을 모시는 것이 몸에 밴 것 같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항일 빨치산 시절 김 주석의 전령병으로 김 위원장을 업어주었던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김 위원장 앞에 보이는 태도를 보면 반드시 그럴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조명록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술을 받을 때 두 손으로 엮어질 듯 받쳤다.

김 위원장은 팔걸이가 없는 의자가 놓인 김 대통령의 자리를 급히 지시해 바꾸도록 했다. 14일 만찬장에서는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이희호 여사를 주석단(헤드테이블)에 앉

도록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산가족을 만
들거냐”고 농담을 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김
위원장 행사를 그리 허술하게 했을까. 모든
것이 선전술에 능한 김 위원장의 연출이 아
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식단에 없는
음식을 한 가지 더 내놓으며 특별 배려란 말
을 붙이는 것도 애교스런 각본이란 느낌을
지을 수 없었다.

김 대통령에 대한 배려는 구석구석 미치
지 않은 곳이 없었다. 8년 전 고위급회담 때
는 의례 단고기 요리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에는 공식 행사장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김 대통령보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배려다.
김 대통령은 단고기를 먹는다. 동교동 시절
한번은 한화갑 의원이 몰래 고기를 싸가 김
대통령에게 내놓고 함께 먹은 적이 있다. 이
사실을 안 이 여사가 한 의원을 꾸짖었다고
한다. 북측은 이미 이런 사실까지 파악해 식
단을 꾸민 것이다.

공연 내용도 왕재산 경음악단처럼 현대식
이 아니라 민요나 민속악기 연주가 많았다.
이것도 김 대통령의 기호를 배려한 것이다.
특히 혁명 가극이나 음악 또는 그런 상징물
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눈에 띄었다. 북한으
로서는 드물게 김일성 주석 참배나 우상화
상징물 관람을 완전히 배제한 것도 그런 배
려의 하나다.

14일 새벽 고려 호텔 밖에는 살수차가 다
났다. 차도 별로 없고 포장이 잘 된 평양 중

심가에 살수차가 물을 뿌린 이유는 물을 필
요도 없다고 보였다. 더구나 평양은 가뭄으
로 물이 넉넉치 않은 상태로 열려져 있다. 외
신이 회담을 앞두고 평양 시내 도로와 공항
등에 대한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
도한 것이 실제로 확인됐다. 대표단이 가는
곳에는 화장실 변기까지 새로 손을 본 흔적
이 보였다.

주민 생활에도 변화의 바람

13일 오전 10시.

비행기 창 밖으로 북녘 산하와 마을이 자
세히 보이기 시작했다. 산에는 크지는 않으
나 나무들이 보였다. 8년 전 개성에서 평양
으로 가는 기차에서 보았던 황톳빛 민둥산과
는 달라보였다. 식량 증산을 위해 산을 깎아
만들었던 계단식 다락밭이 홍수의 원인이 되
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나무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수종을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내원에게 묻자 그렇게 답변했
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듯했다.

평양 주변은 한창 모내기철이었다. 모관
이 남아 있는 곳도 많고, 일부는 모내기를 마
쳤다. 10명 정도의 농부가 모내기를 하고 있
는 곳도 몇 곳 보였다. 평양 시내에 60만 명
이나 되는 인원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모내기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농기계는 전혀 보지 못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기계가 있어도 기름 공급을 못하기 때문이란단.

논에는 모내기를 위해 물을 채워놓았지만 공항 옆 개울은 거의 말라 있었다. 그 바닥에서 하얀 염소 떼가 풀을 뜯었다. 개울 뚝에는 소도 보였다.

주민들의 옷차림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1992년에는 남쪽과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어린 시절(60년대 초) 시골 장에 나가 보던 차림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평양에서 본 주민들의 옷은 남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낯설지 않았다. 안내원은 물론 운전사까지 고급 양복지로 만든 옷이다. 디자인도 남쪽과 비슷했다. 거리에서 보는 주민들의 옷도 서울의 변두리 동네 정도 분위기는 느껴졌다.

주민들의 걸음걸이도 훨씬 여유가 생겼다.

기자단이 묵은 고려호텔 판매점에는 외국 물건도 눈에 많이 띄었다. 북한의 면세점 코너 정도인가. 화장품 코너는 8할 정도가 프랑스제다. 고급 양주에 일본 라면까지 보였다. 안내원들도 최신형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나왔다.

북한 상품도 디자인 면에서 많이 개선됐다. 품질은 모르겠지만 투박하던 포장은 세련된 서양식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개성화장품회사의 '머리 영양물(샴푸)', 너와나 합작

회사(일본과의 합작)의 '금강산 살결물(스킨로션)' 등은 프랑스 제품과 섞여 있어도 쉽게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8년 전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 일으켰던 '동동 구리무' 같은 용기와는 전혀 판판이다.

음악 테이프, 비디오, 음악 CD도 순수한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많다. 남쪽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휘파람'은 비디오로 제작돼 있었다. 남쪽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서인지 우리가 가면 어느 새 '휘파람'을 틀어놓곤 했다.

안내원들과 밤 늦게 호텔 커피숍에서 맥주를 마실 때 안내원이 주머니에서 꺼낸 담배는 영국산 '던힐'이었다. 최근 평양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끊은 것도 변화라면 변화다. 김정일 위원장은 골초로 알려졌다. 최근 그가 담배를 끊은 것이 북한 당국의 금연 운동 장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호텔에서는 미국 달러화를 북한돈처럼 바로 쓸 수 있었다. 1 달러에 2 원이 조금 넘지만 거의 1 달러 = 2 원으로 쓰였다.

평양의 밤거리는 몹시 어둡다. 1992년 평양 시내에서 저녁 행사를 마치고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갈 때 거리는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둠의 도시였다. 그러나 올 6월 평양의 밤에는 그래도 아파트 불빛이 일부 보였다. 전력이 부족한 평양이 왜 조금이라도 밝아졌을까. 농기계조차 못 쓰는 사정을 감안하면 당시 철저히 불빛을 가리던 燈火管

제가 느슨해진 때문이 아닌가 싶다.

“외국보다 같은 민족끼리 사업하는 게 좋지 않나”

가장 변화가 빠른 것은 역시 경제 분야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순조롭게 흘러가자 안내원들은 남쪽과의 경협 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실했다. 한 안내원은 “경협을 하려면 기왕에 외국보다는 남측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필자를 안내한 나운석氏는 특히 경협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대남 경협 사업을 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民經聯) 소속이라고 밝힌 그는 베이징과 홍콩 등지에서 남쪽 인사와 경제 사업을 했었다고 했다. 그는 “남쪽은 전자 분야 등에서 일본에 가까운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 않느냐. 북쪽은 낮은(값 싼) 임금에 질 좋은 노동력이 있으니 보완적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북 정상간에 화해 협력으로 가는 공동선언을 하게된 것이 북한의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필자의 지적에 공감을 표실했다. 그는 사업차 동료 한 명과 홍콩을 간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항 심사대에서 한 사람에 3 시간 이상씩 붙들었다고 한다. 마치 마약 거래나 테러를 일삼는 깡패 취급을 해 굉장히 불쾌했다는 것이다.

또 홍콩에서의 거래도 제대로 되지 않아 며칠 동안 거리에서 싹 음식만 골라 사먹고

다니며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경험도 털어냈다. 그러면서 남쪽 기업인들이 처음 약속과 달리 계약을 쉽게 해주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실했다. 이것은 미국이 적성국으로 분류해 교역에 제한이 가해진 부분도 관련이 있는 듯했다. 그는 “계약이 거의 다 났는데 국정원이 방해했다”고 했다.

“남쪽과 협력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많이 만들었지만 그 가운데 이행된 건 5%도 안 됩니다.” “하자고만 해놓고 결과가 없습니다.”

남쪽과의 경협에서 또 한 가지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은 분업 방식이다. 북쪽이 그나마 자급이 가능한데 남쪽과 협력한다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만 유치하면 남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것, 특히 북한의 중공업마저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실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점, 특히 호텔 상점에 전시된 북한 상품은 주로 수공업예품이었다. 實景 산수화, 보석화, 인형 등 봉제품, 수예품 등이 주종이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도 하드웨어 부문은 당연히 뒤쳐지지만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부문은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한다. 전반적인 산업 수준이 뒤쳐진 상황에서 외국에 팔 물건은 산업 연관성이 떨어진 제품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

남쪽과 경제 협력을 하더라도 노동 집약

적 산업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북측 인사들도 인정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중국으로 경쟁력이 넘어갔던 산업들이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서로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북측 인사의 이같은 우려를 감안할 때 남쪽과 협력하는 사업은 노동 집약형으로 가되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별도로 중공업 등에 투자해 최소한 자립 경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남쪽에 의존도를 높일수록 협력 관계가 끊어질 때 위험에 빠진다는 생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북측에서는 '교류 협력'과 '협력 교류'를 구분한다는 점이다. 라운석氏は "교류만 하자면 다른 나라와 무엇이 다르냐"면서 "협력을 전제로 한 교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남쪽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주의의 매운 맛'을 본 탓인 듯했다.

장군님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같은 변화의 배경은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인식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세계 역사와 조류를 많이 알고 있고, 문제에 대해 납득이 되면 금방 수용하는, 뭔가를 이루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내원들도 인정할 정도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점도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념으로 남쪽과 경쟁해서 얻을 것은 없기 때문이다. 남쪽이나 미국이 북쪽의 체제를 인정한다면 문을 닫아걸어 경제적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 경제를 받쳐줬던 중국이나 러시아도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나서 북한을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안내원들은 불신감을 보였다.

더구나 김 위원장은 3년상을 마친 뒤 이제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다. 자신의 정통성을 통일 문제,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자.

이런 김 위원장의 인식이 주한 미군 인정, 노동당 규약 개정 약속 등으로까지 나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내부 권력 기반이 확고하게 다져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여준 김 위원장의 파격적 행동들은 그의 권력 기반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말해준다. 김용순 비서가 "장군님이 수표(서명)하시면 우리는 따릅니다"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더구나 강경파인 군부 지도자들이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 대통령 앞에 도열한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統